

걸 프 灣 事 態

이제까지의 戰爭의 역사를 살펴 보면 資源의 確保를 목적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또 이를 응징하려고 했던 예가 非一非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中世時代에 匈族이 유럽을 침입하였던 것은 따뜻한 기후와 식량의 확보를 탐하였기 때문이며 美國人들의 西部開拓史는 원주민 인디안들로부터 목재와 모피, 그리고 농경지를 얻기위한 싸움으로 점철되었다. 최근세에 이르러 日本이 大東亞戰爭을 일으켰던 이유는 南方의 석유와 고무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는데 있었으며, 지난 60, 70년대에 아프리카를 풍미하던 대부분의 內戰들은 原資材 확보를 위한 先進工業國들간의 代理戰에 불과하였다 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러면 작금의 걸프灣 戰爭은 과연 어떤 성격의 것이었을까? 美國의 이익을 대변하는 CNN放送과 설익은 우리 言論의 편향된 보도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始終一貫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된 전쟁의 성격은 아랍의 독재자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UN 결의에 의해 형성된 多國籍軍이 정의로운 전쟁을 완수하였다는 것이다. 아랍민족과 서구 민족과의 종교적 대결이었다든지, 이 지역의 석유 확보를 위한 西歐諸國들의 의도적인 개입이었다든지, 또는 美國經濟를 回生시키기 위한 底意가 있었다든지하는 이 전쟁에 대한 다른 多樣한 견해들은 우리 언론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무시되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제대로 보도가 되지 못했다.

美國民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후세인에게 한번 뜨거운 맛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바야흐로 蘇聯의 몰락으로 美國이 이제 다시 세계의 큰형님으로 부각될 수 있는 刹那에, 國際經濟戰에 있어서는 일본에 뒤처지고 西歐유럽은 EC로 통합되어 가뜩이나 불안

하던 차에, 더욱이 국내 경제사정이 惡化一路에 있는 이 시점에서 마음먹은 대로 승리를 요리할 수 있는 전쟁을 벌여서 서구 세계의 守護者로서, 세계의 警察로서 그 위세를 한번 부각시켜야 할 필요가 美國에게는 다분히 있었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 전쟁의 결과로 中東地域에서 美國의 既得權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내 경기를 소생시킬 수 있다는 보너스가 있음에야 어찌 부시대통령이 이 전쟁을 마다할 수 있었을까?

서유럽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 지역의 정세 안정이 저유가 석유의 지속적 공급에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美國의 전쟁 요청을 거부할 필요가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종전이 되어 쿠웨이트와 사우디가 엄청난 오일달러로 再建事業을 벌이게 될 때 자신들도 한 몫 보는데 가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자 전쟁은 그들에게는 약간의 투자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에 다름 아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처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고 나서부터 國際社會에서—특히 UN에서—이 문제에 대해 북치고 장구치고 한 당사자들은 오로지 美國과 西歐의 몇 나라들에 불과하였다. 제3세계 국가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당면한 국내경제사정 때문에 서구 나라들에 손을 내밀고 있던 蘇聯은 자연히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日本은 국제 문제에 대해 냉철히 분석은 하지만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特有的 視覺으로 사태를 銳意 注視하고 소극적인 가담을 하였을 뿐이었다.

이런 와중에서 전쟁이 발발하였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세계의 석유가는 처음의 예상과는 달리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전세계의 권위있는 研究機關들과 碩學들이 전쟁이 개시되면 油價가 30~40 달러 수준으로 오르고 자칫하면 3차 오일쇼크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무수히 내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전기간 동안 油價는 오히려 소폭으로 하락하였을 따름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전쟁에 대한 우리 나라의 입장은 한번도 國民的 共感帶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政治的으로, 國民感情的으로, 經濟的으로 여러 多樣한 견해들이 등장하였지만 전쟁이 수행되는 동안 한번도 차분히 이 전쟁의 성격을 진단하고 이 전쟁에서 우리 나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없었다. 아니, 무수한 논의가 방송으로 신문 잡지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를 정리한 사람은 없었다.

걸프灣 戰爭을 보는 우리의 주된 입장은 분명히 경제적인 측면인 것이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 나라의 사정상 걸프灣 事態는 低油價 석유 확보 문제에 쏠려있었다. 附隨的으로는 이 지역에서의 建設 受注와 消費材 輸出도 중요하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低油價 석유의 확보에 있다. 따라서 걸프灣 戰爭에 대한 우리 나라의 입장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이 문제가 더욱 浮刻되어야만 했다.

이 戰爭이 우리 나라의 에너지계에 示唆하는 바는 컸다. 무엇보다도 먼저, 전세계의 에너지 動向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의 油價動向에 대해서 우리들은 보다 정확한 안목을 가져야만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전쟁 기간 동안 국제 석유가격은 내렸는데 국내 석유가격은 오히려 인상시켜야만 했던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에너지 節約에 대해 우리들이 평소에도 너무 무심했다는 점이 이번 전쟁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걸프灣 戰爭이 발발하였을 때 日本이 보인 자세는 참으로 인상깊은 것이었다. 日本은

지난 70년대의 오일쇼크 이후 꾸준히 에너지 節約에 힘을 기울여 현재 에너지 使用의 效率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日本의 에너지 效率 增加는 내은사인을 억제하고 엘리베이터를 격층제로 운행하고 자가용 10부제를 실시하고 하는 그런 일상 생활에서의 소비 억제로 달성한 것이 아니었다. 日本은 그동안 발전 시설의 효율을 높이고 건물의 斷熱保溫性을 높이며 燃比가 높은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는 등 근본적인 에너지 節約 方案의 개발에 정성을 쏟아왔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근본적인 改善策을 소홀히 하였다가 막상 전쟁이 발발하니가 節電을 해라 自動車를 타지마라 하고 난리를 피울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에너지業界의 순발력을 재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제 에너지 문제는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만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다. 에너지의 확보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것이 이번 걸프灣 戰爭의 교훈이다. 따라서 에너지 問題와 經濟와 政治 問題를 함께 묶어서 전세계의 동향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순발력이 에너지業界에 요구된다고 하겠다. 필자는 작년 7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였을 때 그곳의 知性들로부터 걸프灣 戰爭을 豫測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때에는 무심히 흘려듣고 말았지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情報를 얻을 수 없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多方面에서 國際感覺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에너지業界가 술선해서 國際感覺을 배양하고 순발력을 키워야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된다.